

최근 인천경제

2026년 7월



I 지역경제

1. 기업경기
2. 투자
3. 수출입
4. 기업금융
5. 고용

II 시민경제

1. 소비
2. 물가
3. 가계금융
4. 소상공인
5. 부동산



최근 인천경제 요약

I. 지역경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 감소와 기업심리 위축, 건설수주 부진, 고용 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인천 경기의 회복 동력은 제한적인 상황

(기업경기) 재고 부담 완화와 선행지수 개선에도 생산 감소와 기업심리 위축으로 경기 회복 지연

(투 자) 전국 설비투자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인천 건설수주는 낮은 규모에 머물며 건설투자 회복 지연

(수 출 입) 인천은 수출 증가에도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 적자 전환, 전국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업금융) 예금은행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기업 대출잔액이 증가한 반면, 비은행 대출은 감소 지속

(고 용)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고용률 정체와 상용직 감소, 자영업자 부진으로 고용 여건 개선세 미흡

II. 시민경제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물 소비 위축과 물가 부담 지속,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등으로 민생 경기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

(소 비) 소비심리 개선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실물 소비가 위축되고 위기 업종도 늘며 내수 부진 지속

(물 가) 서비스 물가 둔화에도 석유류·공업제품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가계금융) 1금융권 중심의 신규 대출 증가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나빠지며 회복세 악화

(부 동 산) 매매·전세가격이 오르고 매수 심리도 개선됐으나, 주택 거래량은 평년 수준을 밑도는 모습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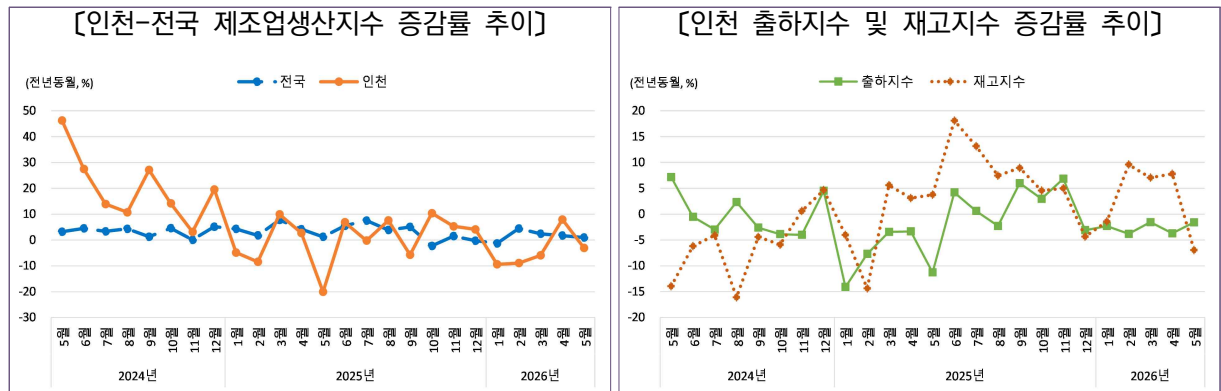
류동훈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재고 부담 완화와 선행지수 개선에도 생산 감소와 기업심리 위축으로 경기 회복 지연

- '26.5월 인천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15.9% 감소하여 136.0을 기록
 - 인천 광공업 생산지수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업종은 의약품(8.2%), 의료정밀광학(50.8%), 기계·장비수리(49.9%) 등이며, 기계장비(△35.3%), 전기·가스·증기업(△9.0%), 고무·플라스틱(△15.7%) 등 업종에서 감소
 - 인천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10.8로 전년동월대비 1.6%, 전월대비 3.1% 감소했고, 생산자제품 재고지수(계절조정)는 전년동월대비 7.0%, 전월대비 10.9% 감소하여 108.4를 기록
- (전국) '26.5월 반도체 등 IT품목 호조로 광공업이, 전 업종 증가세에 힘입어 서비스업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여 전반적 산업 생산이 성장세를 이어갔고,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도 증가세 유지
 - 전국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의료정밀광학(16.1%), 통신·방송장비(29.7%), 반도체(1.5%) 등이 증가, 자동차(△5.2%), 석유정제(△14.7%), 고무·플라스틱(△7.3%) 등이 감소하여 광공업(△0.9%) 감소 전환
 - 전국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협회·수리·개인(△5.7%)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10.4%), 전문·과학·기술(17.5%) 등에서 증가하여 서비스업(4.9%) 증가 폭이 전월(3.7%)보다 확대

(p:잠정치, 소매판매액지수(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는 불변지수 기준)

전월비, % 전년동월비, %	전 국						
	전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소매판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26.4월 ^p → 5월 ^p	△0.4 → △0.3 2.4 → 2.3	△0.7 → △3.0 1.5 → △0.9	△0.9 → 1.3 3.7 → 4.9	△3.5 → 0.1 1.6 → 1.7	△11.0 → △3.4 1.7 → △3.6	0.1 → 2.3 4.6 → 7.7	△1.1 → 0.9 0.5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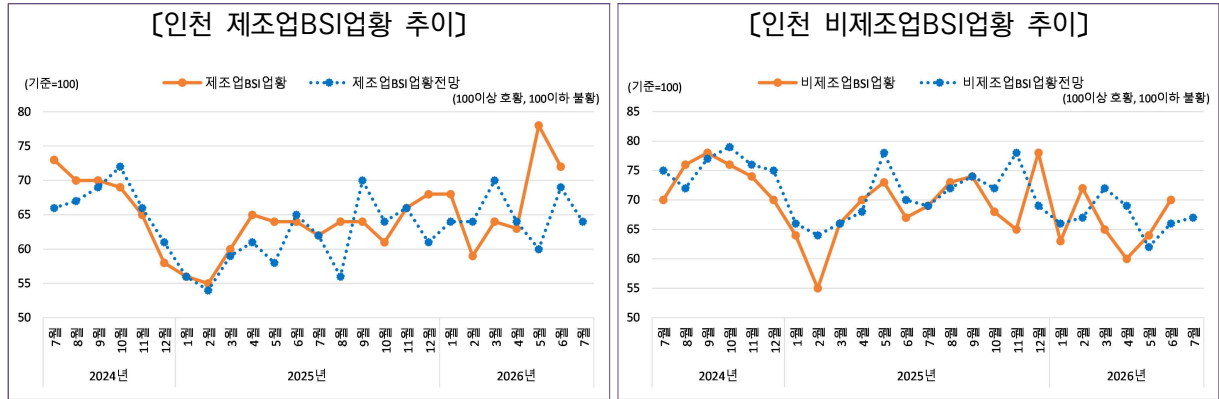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인천광역시 제조업생산지수]

2020=100 (전년동월, %)	2024년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p	5월 ^p	
생산지수	146.1 (22.7)	145.9 (△0.1)	127.9 (△9.4)	129.5 (△8.9)	154.2 (△5.9)	161.8 (7.9)	136 (△3.1)	△15.9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119.2 (3.2)	116.3 (△2.4)	106 (△2.3)	110.7 (△3.8)	113.7 (△1.6)	114.3 (△3.7)	110.8 (△1.6)	△3.1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108.8 (4.5)	104.5 (△4.0)	110.7 (△1.4)	122.2 (9.6)	115.3 (7.1)	121.7 (7.8)	108.4 (△7.0)	△10.9

- 주 1) () 연간자료의 경우 전년대비 증감률, 월간자료의 경우 계절조정값을 활용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는 잠정치
 2) 전월대비는 최근 제조업생산지수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3)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반영으로 일부 시계열 변경)

- 인천 제조업 BSI 실적은 전월대비 6p 감소, 전년동월대비 8p 증가하였고, 비제조업 BSI 실적은 전월대비 6p, 전년동월대비 9p 증가하였으며, BSI 전망은 전월대비 제조업은 5p 감소, 비제조업은 1p 증가
- 제조업 업황BSI 전망(S.A.): ('26년 4월) 64 → (5월) 60 → (6월) 69 → (7월) 64
 - 비제조업 업황BSI 전망(S.A.): ('26년 4월) 69 → (5월) 62 → (6월) 66 → (7월) 67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인천광역시 부문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26년					2026년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5월	6월
제조업 매출	77	85	93	90	제조업 내수판매	81	86	89	87
제조업 생산	80	89	91	91	제조업 수출	81	93	94	96
제조업 신규수주	71	76	90	81	제조업 원자재구입가격	141	155	157	151
제조업 채산성	62	61	62	62	제조업 자금사정	70	70	73	72
제조업 판매가격	94	99	107	102	비제조업 매출	74	69	71	78
제조업 제품재고	98	97	98	99	비제조업 채산성	68	66	74	77
제조업 설비투자	88	93	94	91	비제조업 인력사정	81	79	81	79
제조업 인력사정	93	93	93	91	비제조업 자금사정	70	66	78	81
제조업 가동률	78	85	95	96					

주 1) 본 BSI는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많고, 100보다 작을 때는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많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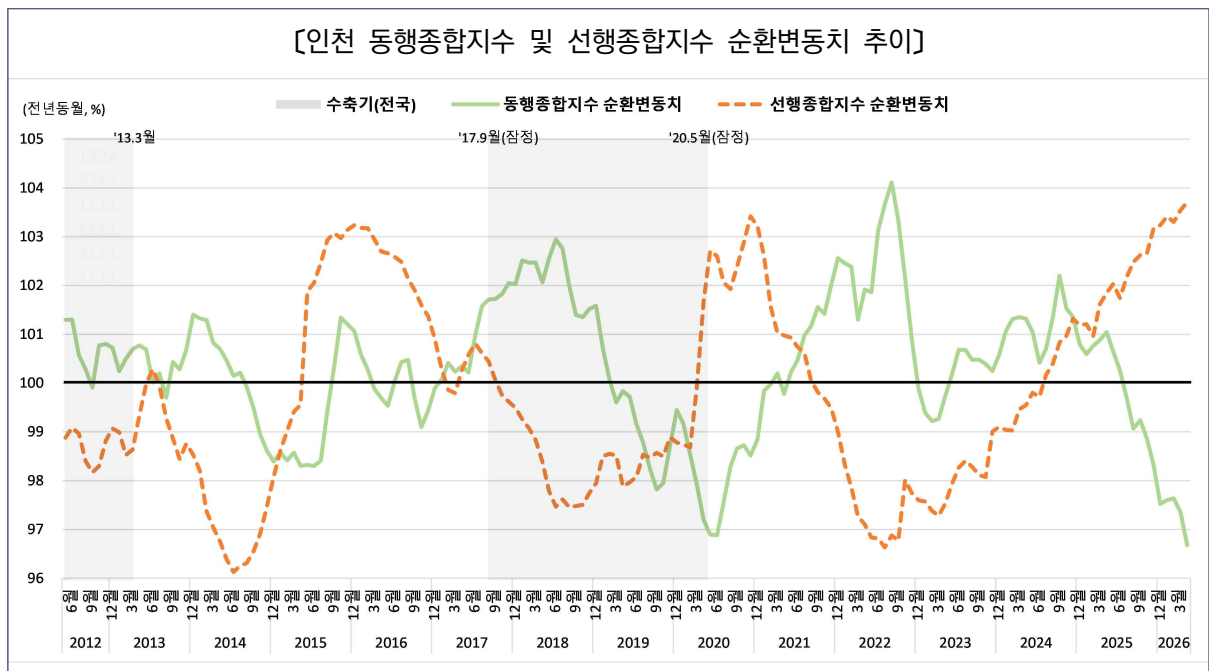
2)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인천광역시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실적 BSI]

기준=100 (전년동월, %)	2025년					20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조업 업황	64 (△8.6)	64 (△8.6)	61 (△11.6)	66 (1.5)	68 (17.2)	68 (21.4)	59 (7.3)	64 (6.7)	63 (△3.1)	78 (21.9)	72 (12.5)
비제조업 업황	73 (△3.9)	74 (△5.1)	68 (△10.5)	65 (△12.2)	78 (11.4)	63 (△1.6)	72 (30.9)	65 (△1.5)	60 (△14.3)	64 (△12.3)	70 (4.5)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2%(전년동월대비 △4.26%) 하락하였으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9%(전년동월대비 1.77%) 상승
 - '26.5월 전월대비 동행종합지수 0.7p 감소, 선행종합지수 0.2p 증가하여 각각 96.7, 103.7을 기록
 - 동행종합지수 구성 지표 중 비농가취업자수, 컨테이너처리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수입액 지표가 증가하였고,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수출액 지표는 감소
 - 선행종합지수 구성 지표에서 재고순환지표, 수출입물가비율, 금융기관유동성, 장단기금리차 지표가 증가하였고, 신규구직자수, 건축허가면적 지표는 감소했으며,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전월과 동일
 - 인천 동행종합지수는 고용·소비와 부동산·물류 지표 호조에도, 산업생산 위축과 수출 부진 등 실물·대외 부문 약세로 하락한 반면, 선행종합지수는 구직·건설투자 지표 위축에도, 교역조건·금리 등 금융 여건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
 - 동행 및 선행 순환변동치의 상반된 움직임으로 양 지수 간 격차가 7.0p로 전월대비 확대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격차가 유지되며 동행·선행 지표 간의 괴리 기조 지속('26.2월 5.8p → 3월 5.7p → 4월 6.1p)
- * 2분기 이상 순환변동치가 증가하면 경기 확장기, 감소하면 경기 수축기로 판단(통계청 경기종합지수 해설 참고)



- 주 1)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계절조정지수를 적용하여 과거 선행·동행 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가 소폭 변경되었음
 2) 자료 : 인천경기종합지수 재구성, 인천연구원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라 가중치 변경 및 연강보정 반영으로 일부 시계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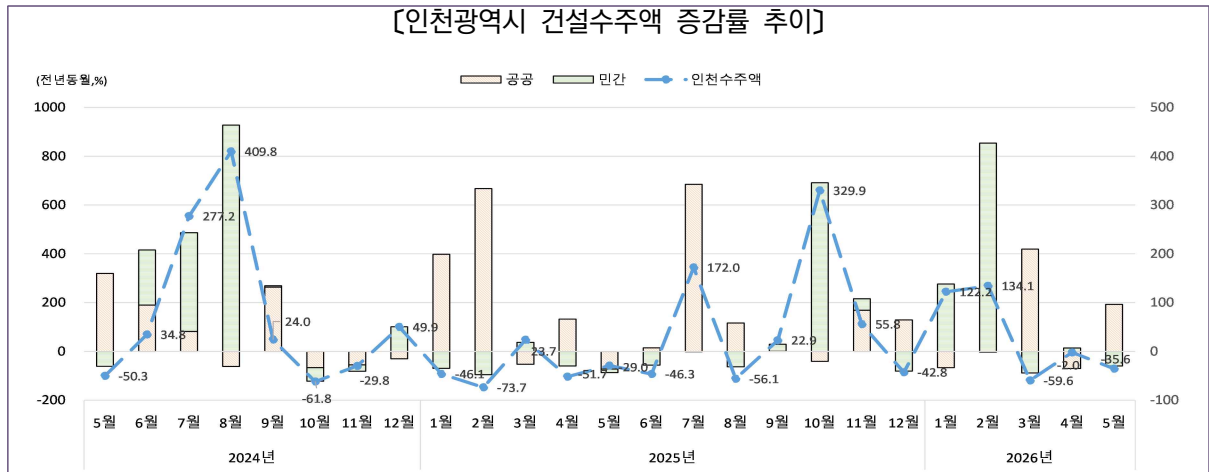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경기종합지수]

2020=100	2025년						202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p)	100.3 (△0.3)	99.7 (△0.6)	99.1 (△0.6)	99.2 (0.1)	98.9 (△0.3)	98.3 (△0.6)	97.5 (△0.8)	97.6 (0.1)	97.6 (0.0)	97.4 (△0.2)	96.7 (△0.7)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p)	101.7 (△0.3)	102.2 (0.5)	102.5 (0.3)	102.6 (0.1)	102.7 (0.1)	103.2 (0.5)	103.2 (0.0)	103.4 (0.2)	103.3 (△0.1)	103.5 (0.2)	103.7 (0.2)

- 주 1) 종합지수 산출시 사용하는 데이터의 변경과 추세 산출시 PAT법을 적용하는 관계로 종합지수가 변경될 수 있음
 2) 자료: 인천경제동향, 인천연구원

전국 설비투자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인천 건설수주는 낮은 규모에 머물며 건설투자 회복 지연

- '26.5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발주자별 건설수주액은 공공 193.0% 증가, 민간 59.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5.6% 감소, 전월대비 공공은 369.6% 증가, 민간은 62.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6.5% 감소
- 전년동월 기준 공공 부문은 신규주택, 치산·치수, 토지조성 등의 수주가 늘었고, 민간 부문은 신규주택, 토지조성, 기타건축 등의 수주가 줄었으며,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37.8% 감소, 토목 부문 23.0% 증가



자료 : 건축허가및통계, 국토교통부

- (전국) 설비투자는 기계류·운송장비 중심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건설투자는 공사실적 부진 지속
- 전년동월 기준 반도체 제조용 기계(75.9%) 등을 중심으로 일반기계(21.4%)와 정밀기기(3.2%) 투자가 확대되며 기계류(12.5%)가 성장세를 지속했고, 자동차(10.2%) 등 강세에 힘입어 운송장비(4.2%)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는 건설기성(△1.9%) 위축으로 감소세 지속

(p:잠정치)

전월비, %	전 국					
전년동월비, %	설비투자	기계류	운송장비	기계수주	건설기성	건설수주
'26.4월 ^p → 5월 ^p	△3.7 → △0.1 7.9 → 9.7	0.1 → △0.2 10.0 → 12.5	△11.3 → 0.2 3.8 → 4.2	△2.7 → 25.4 △8.7 → 25.9	△1.4 → 3.8 △5.3 → △1.9	8.7 → 18.8 55.7 → 55.3

[인천지역 건설동향]

(단위 : 천㎡, 억원, %, p는 잠정치)

		2024년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p	5월 ^p	
건축허가면적		7,342 (△25.0)	7,955 (8.3)	355 (△6.0)	328 (35.6)	1,206 (207.2)	756 (△52.5)	431 (9.1)	△43.0
건축착공면적		7,628 (44.5)	5,228 (△31.5)	233 (86.7)	129 (△59.7)	535 (84.9)	1,006 (34.2)	537 (12.5)	△46.6
건설수주액		126,207 (47.6)	104,705 (△17.0)	10,978 (122.2)	7,071 (134.1)	4,839 (△59.6)	6,680 (△2.0)	4,240 (△35.6)	△36.5
발주	공공	15,103 (△11.9)	28,942 (91.6)	766 (△66.6)	2,472 (△2.6)	3,509 (419.0)	394 (△69.9)	1,852 (193.0)	369.6
	민간	111,104 (84.4)	72,818 (△34.5)	9,979 (276.4)	4,599 (853.9)	1,330 (△88.2)	6,285 (14.1)	2,387 (△59.9)	△62.0
공종	건축	93,292 (43.5)	83,760 (△10.2)	10,077 (289.4)	4,605 (520.1)	3,004 (△73.6)	6,013 (△5.4)	3,942 (△37.8)	△34.4
	토목	32,914 (60.5)	20,945 (△36.4)	901 (△61.7)	2,466 (8.3)	1,835 (214.2)	667 (44.1)	298 (23.0)	△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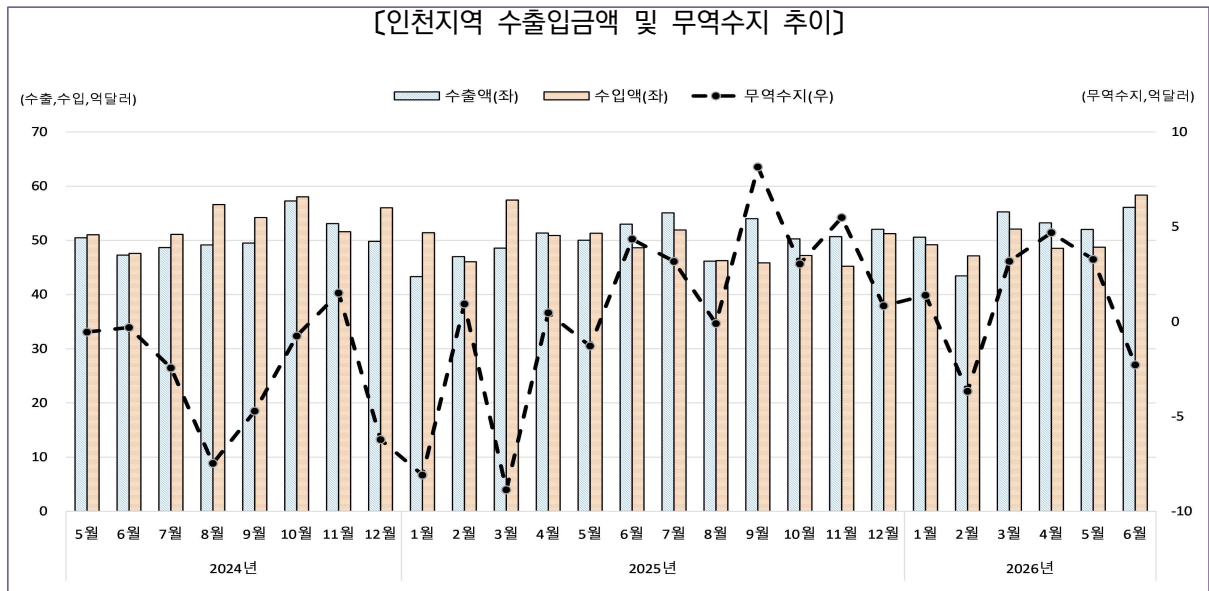
주 1)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의 () 연간 자료는 전년누계대비 증감률, 월간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건설수주액의 () 연간 자료는 전년대비 증감률, 월간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 자료: (1) 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청 (2)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국토교통부

인천은 수출 증가에도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 적자 전환, 전국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 경신

- '26.6월 전년동월 기준 인천 수출액은 5.8%, 수입액은 20.0%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 전환
 - 인천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중간원료(△14.1%)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반도체(4.4%), 의약품(17.4%), 자동차(12.9%), 비누치약및화장품(54.7%) 등 대부분 품목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 증가
 - 최대 수입 품목인 반도체(28.8%)를 비롯해 천연가스(30.9%)·의약품(160.7%)·석탄(97.4%) 등 주요 수입 품목이 큰 폭으로 늘며 인천 전체 수입액이 급증
 - 수출액(5.8%) 증가세에도 수입액(20.0%)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2.3억 달러) 적자 전환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전국) 반도체 등 IT 품목 급증으로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최대 실적 1,000억 달러를 기록
 - 전년동월대비 전국 수출액은 70.9% 증가한 1,022.5억 달러, 수입액은 30.1% 증가한 66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361.5억 달러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271.4억 달러 확대
 -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8개(반도체 199.5%, 컴퓨터 308.8% 등)와 9대 시장 중 7개 지역(중국·미국·아세안 등)에서 고르게 증가하였고, 반도체가 사상 첫 4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1,383억 달러)도 역대 최대를 기록

[인천지역 수출입현황]

역달러 (전년동월%)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 (무역수지)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액	595.24 (10.6)	601.52 (1.1)	43.45 (△7.6)	55.26 (13.8)	53.22 (3.6)	52.00 (3.9)	56.07 (5.8)	7.8
수입액	637.68 (5.6)	593.46 (△6.9)	47.13 (2.3)	52.07 (△9.3)	48.54 (△4.6)	48.72 (△5.1)	58.35 (20.0)	19.8
무역수지	△42.44	8.06	△3.7	3.2	4.7	3.3	△2.3	△5.6

주 1) () 는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월간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자료: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26.6월 주요 수출품 중 자동차(△9.9%), 철강판(△25.9%) 등 일부 주력 품목의 부진에도 그 외 품목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6년 누계 증감률은 전월보다 0.6%p 낮아진 5.9%를 기록
- 수출액(전년동월대비)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반도체(4.4%), 의약품(17.4%), 자동차(12.9%), 철강판(0.5%), 비누치약및화장품(54.7%) 순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수출품목별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5.6월		2026.6월		2026년 누계(1월~6월)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증감률
	총계	5,299	12.0	5,607	5.8	31,060	5.9
1	반도체	1,375	7.1	1,435	4.4	8,781	4.3
2	의약품	775	75.9	910	17.4	4,069	20.2
3	자동차	680	7.1	767	12.9	4,006	5.3
4	철강판	228	△2.4	229	0.5	1,191	△9.9
5	비누치약및화장품	134	△0.8	208	54.7	1,172	32.0
6	무선통신기기	119	△42.5	154	29.2	885	△9.2
7	반도체제조용장비	106	45.1	131	23.4	509	△10.5
8	금은및백금	65	289.7	105	60.7	827	406.5
9	자동차부품	87	4.2	97	12.4	512	△7.8
10	석유화학중간원료	97	△8.6	83	△14.1	592	56.3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26.6월 전년동월대비 인천지역 국가별 수출액 비중 상위 5개국은 중국(5.9%), 미국(△28.4%), 베트남(10.4%), 대만(△3.2%), 홍콩(65.9%) 순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국가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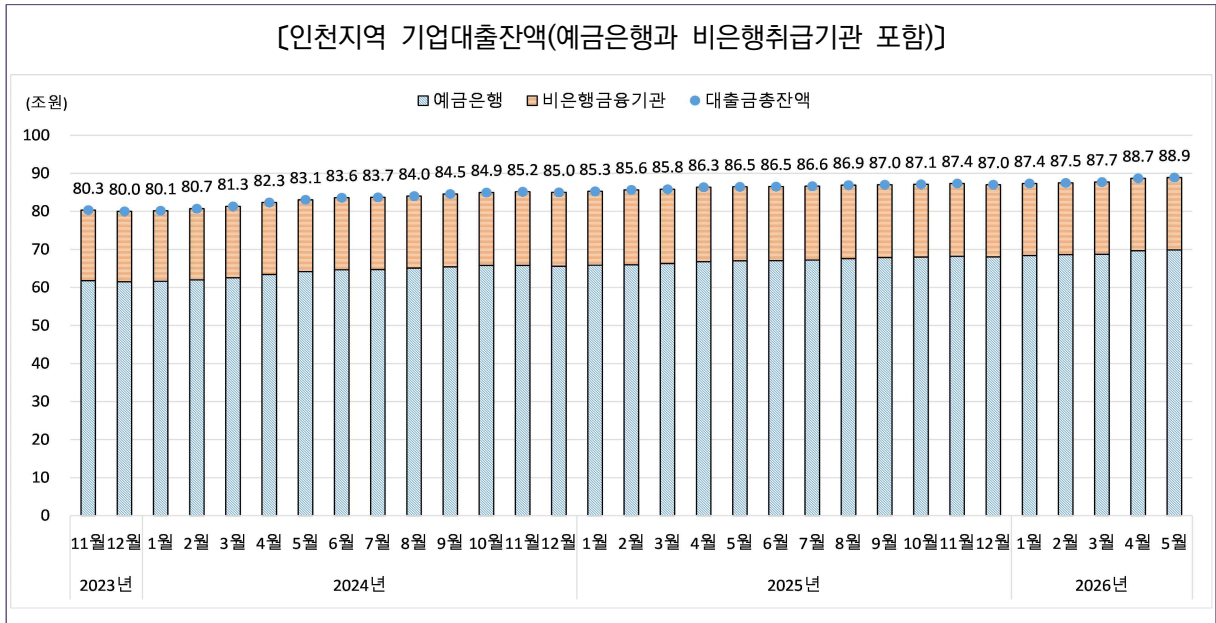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5.6월		2026.6월		2026년 누계(1월~6월)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증감률
	총계	5,299	12.0	5,607	5.8	31,060	5.9
1	중국	915	△25.3	969	5.9	6,118	0.3
2	미국	1,262	26.6	904	△28.4	5,047	△0.3
3	베트남	666	57.8	735	10.4	4,494	25.1
4	대만	295	6.6	285	△3.2	1,312	△24.3
5	홍콩	168	94.4	278	65.9	1,636	94.9
6	싱가포르	170	△9.5	202	19.1	1,201	15.2
7	튀르키예	73	24.1	200	175.0	638	△5.1
8	스위스	173	308.4	187	8.4	820	35.9
9	헝가리	92	△9.5	143	55.2	633	19.0
10	네덜란드	111	184.4	137	23.1	616	54.6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예금은행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기업 대출잔액이 증가한 반면, 비은행 대출은 감소 지속

- '26.5월 인천시 기업 대출잔액은 88조 8,86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9%, 전월대비 0.22% 증가
 - 전월 기준 기업대출잔액은 예금은행(0.34%)은 증가한 반면, 비은행(△0.24%)은 감소
 - 대기업 대출잔액은 전년동월대비 13.13% 증가, 전월대비 0.94% 감소하여 8조 3,368억 원을 기록
 -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0조 5,495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2%, 전월대비 0.34% 증가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 '26.5월 인천시의 어음부도율은 전월대비 7.56%p 감소,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2%p 증가
 - '26.5월 어음부도액은 전월에 발생했던 위·변조(1,001.0억 원 → 0.0억 원) 사유와 비제조업(1,015.6억 원 → 26.8억 원) 업종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1,092.1억 원 줄어든 33.8억 원을 기록

[인천지역 기업대출잔액 지표]

십억원 (전년동월, %)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p)
				1월	2월	3월	4월	5월	
예금은행	전체	65,595 (6.6)	68,014 (3.7)	68,382 (3.8)	68,622 (4.0)	68,743 (3.7)	69,634 (4.3)	69,875 (4.3)	0.3
	중소기업	59,536 (5.8)	61,394 (3.1)	61,493 (3.1)	61,673 (3.1)	61,912 (2.9)	62,166 (2.9)	62,468 (3.3)	0.5
비은행 취급기관	전체	19,391 (4.9)	18,986 (△2.1)	18,975 (△2.2)	18,851 (△4.2)	18,959 (△3.0)	19,057 (△2.6)	19,012 (△2.5)	△0.2
	중소기업	18,659 (5.6)	18,110 (△2.9)	18,066 (△2.8)	17,997 (△4.3)	18,115 (△3.2)	18,110 (△3.1)	18,082 (△3.0)	△0.2
어음 부도율	인천	0.25	0.19	0.01	0.04	0.66	7.82	0.26	△7.56
기업대출 연체율	인천	0.27	0.29	0.28	0.32	0.29	0.3	0.32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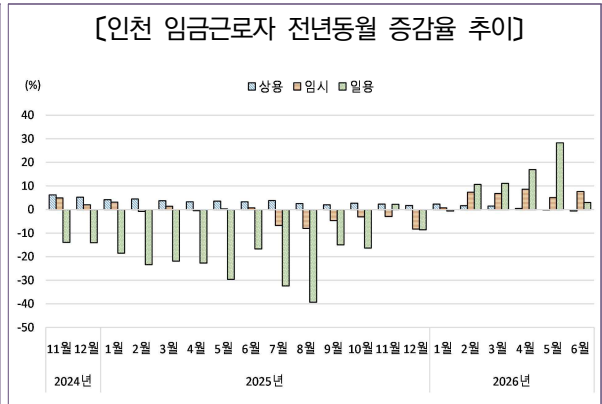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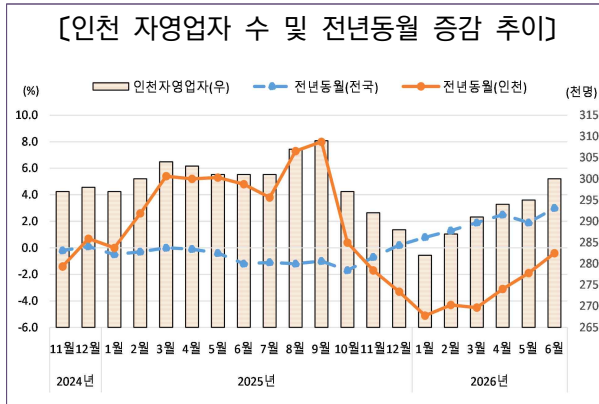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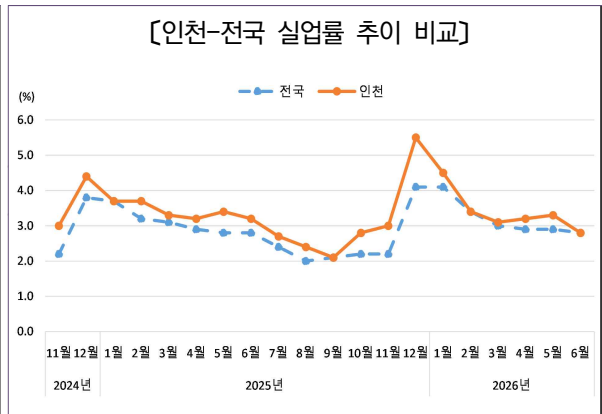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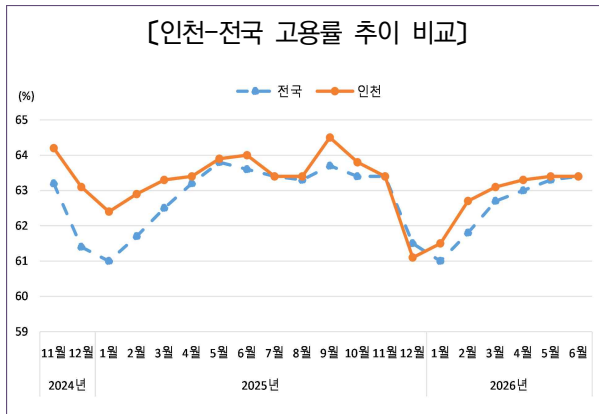
주 1)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비은행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기타

3) 자료: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고용률 정체와 상용직 감소, 자영업자 부진으로 고용 여건 개선세 미흡

- '26.6월 인천시 고용률은 63.4%(전국 63.4%)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 전월대비 보합, 실업률은 2.8%(전국 2.8%)로 전년동월대비 0.4%p, 전월대비 0.5%p 감소
 - 남성 고용률은 전월대비 0.6%p 증가한 72.5%를 기록, 여성 고용률은 54.5%로 전월대비 0.6%p 감소
- 인천시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 기준 상용직(△0.6%)이 줄었으나 임시직(7.6%)·일용직(3.0%)이 늘었고, 자영업자는 299.9천 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전월대비 1.6% 늘어 '26.1월 이후 증가 흐름을 이어감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인천지역 고용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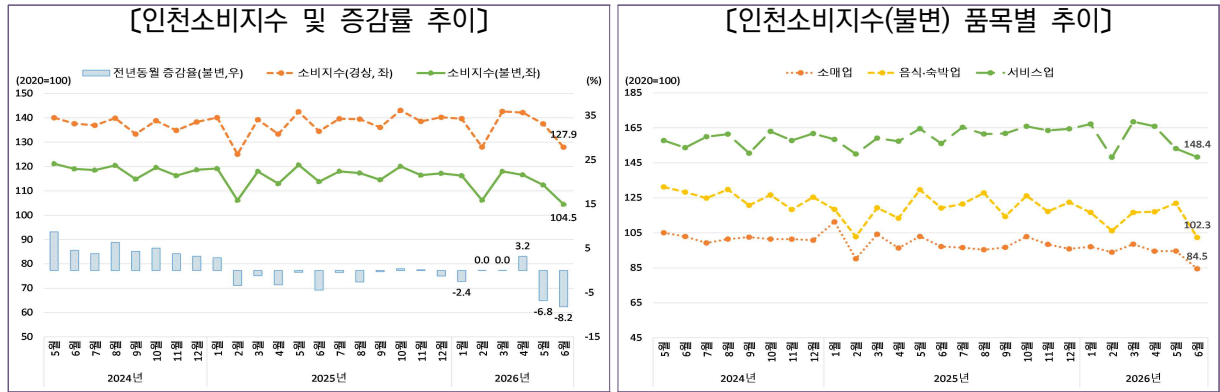
% (전년동월차,%p)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차 (%p)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고용률	63.5 (0.4)	63.3 (△0.2)	61.5 (△0.9)	62.7 (△0.2)	63.1 (△0.2)	63.3 (△0.1)	63.4 (△0.5)	63.4 (△0.6)	0.0
남자	72 (△0.3)	72.3 (0.3)	71.2 (0.0)	72 (0.9)	72 (0.0)	72.2 (0.1)	71.9 (△1.1)	72.5 (△0.4)	0.6
	55.2 (1.1)	54.4 (△0.8)	52 (△1.7)	53.5 (△1.3)	54.3 (△0.5)	54.6 (△0.2)	55.1 (0.2)	54.5 (△0.9)	△0.6
실업률	3.3 (0.1)	3.2 (△0.1)	4.5 (0.8)	3.4 (△0.3)	3.1 (△0.2)	3.2 (0.0)	3.3 (△0.1)	2.8 (△0.4)	△0.5

주 1) 증감은 소수점 한자리 수에서 반올림,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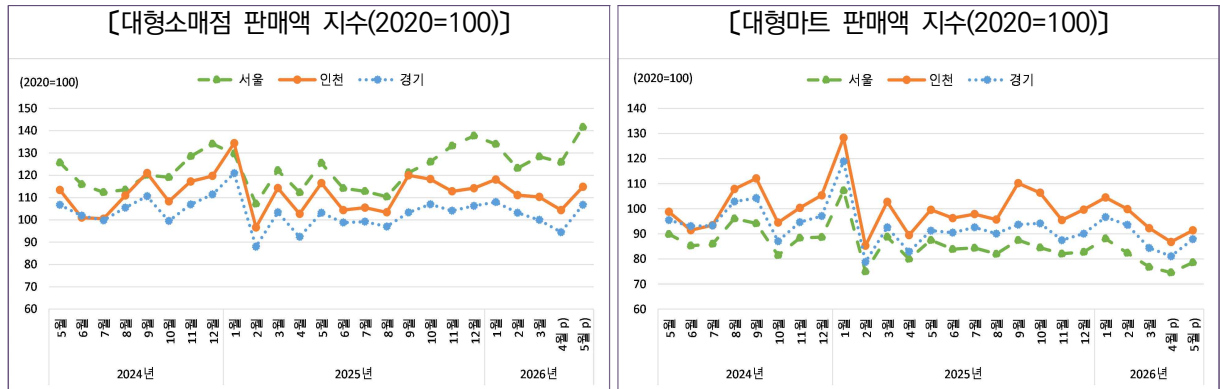
소비심리 개선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실물 소비가 위축되고 위기 업종도 늘며 내수 부진 지속

- '26.6월 인천소비지수(불변)는 전년동월대비 8.2%, 전월대비 7.1% 감소하여 104.5를 기록
 - 품목별 지수는 전년동월 기준 소매업(△13.1%), 음식·숙박업(△14.2%), 서비스업(△5.0%) 모두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음식·숙박업(△16.1%), 소매업(△10.8%), 서비스업(△3.2%) 전 부문 감소



자료 : 신용/체크카드 결제 정보, 신한카드

- '26.5월 인천 대형소매점·대형마트는 전월대비 반등했으나, 전년동월 기준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 지속
 - '26.5월 인천 대형소매점은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전월대비 10.0% 증가했고, 대형마트도 전년동월대비 8.2% 감소, 전월대비 5.3% 증가하며, 전월 반등에도 지난해 수준을 밑돌아 소비 회복세는 아직 제한적
 - 전년동월 기준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서울(12.8%)·경기(3.4%)가 증가, 인천(△1.5%)은 감소한 가운데,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경기(△3.7%), 인천(△8.2%), 서울(△10.2%) 순으로 감소 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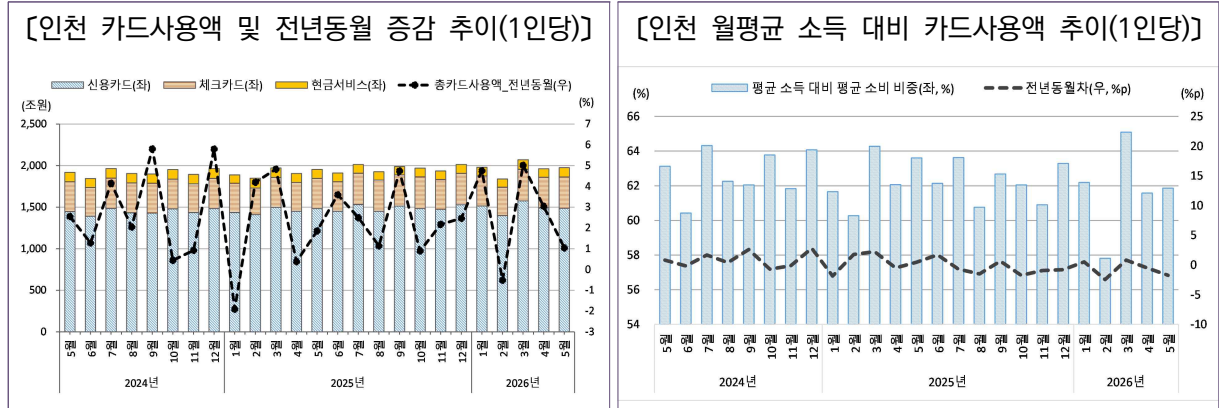
자료 :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청 (* 매월 발표되는 지수는 잠정치(p)로 2개월 후에 확정)

- '26.6월 인천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3.0p 상승하여 108.0을 기록
 - 인천 소비자심리지수 구성지수에서 소비지출전망(1.3p), 현재경기판단(0.7p), 생활형편전망(0.5p), 가계수입전망(0.4p), 향후경기전망(0.1p)이 상승, 현재생활형편(0.0p)은 보합을 보이며 소비심리지수 상승

(전년동월, p)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인천 소비자심리지수	109.5 (10.8)	111.7 (17.5)	109.9 (25.6)	109.0 (22.3)	111.5 (21.3)	107.9 (18.7)	97.6 (9.2)	105.0 (7.5)	108.0 (5.0)	3.0

주 1) 소비자심리지수 100은 표준화구간(2003~2021년) 중 장기평균을 의미
 2)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작으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음(나쁨)을 의미
 3) 자료: 소비자동향조사(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

- '26.5월 전년동월 기준 1인당 카드 총소비액은 1.0% 증가,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9% 증가하여 1인당 월평균 소득 대비 카드사용액 비중의 차는 전년동월대비 1.7%p 축소
- 세부적으로는 전년동월 기준 체크카드(3.6%), 신용카드(0.2%), 현금서비스(4.3%) 모두 증가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p.13 참조)

- 전년동월 기준 6개 업종에서 성장세를 보였고, 2개 업종이 주의, 5개 업종이 위기를 기록
- 주의 업종으로 숙박(△5.53%), 슈퍼(△6.35%)이 있으며, 위기 업종은 기타소매(△10.48%), 가전가구(△14.05%), 교통운송(△14.41%), 대형종합소매(△15.98%), 문화관광(△19.39%)으로 구성

[인천지역 업종별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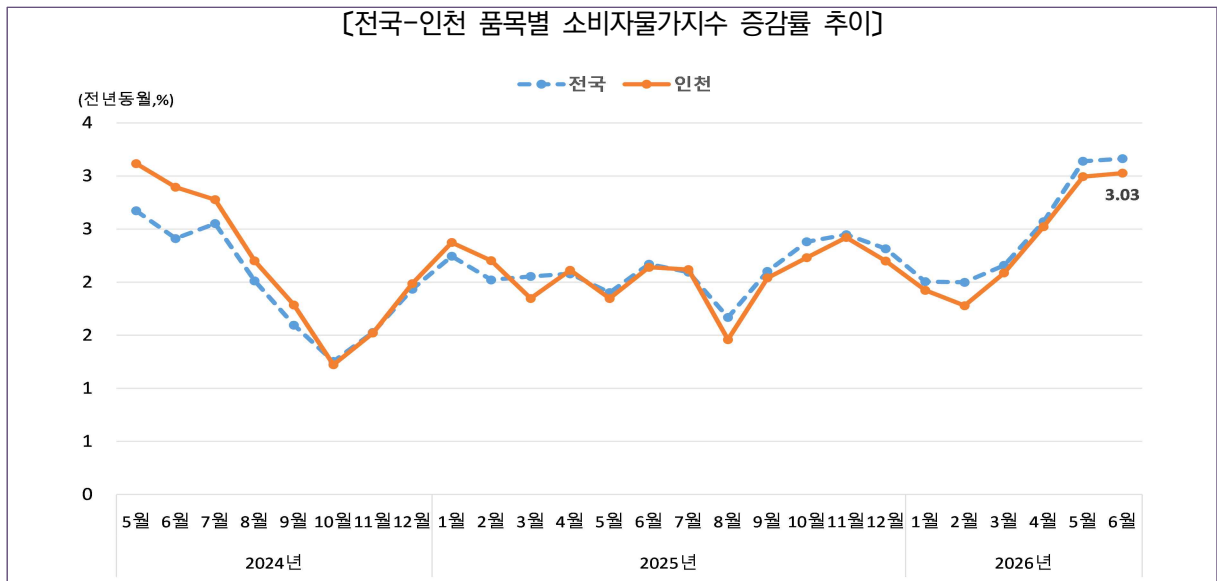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순위	업종*	'25.4월 ~ '25.6월		'26.4월 ~ '26.6월		'26년 누계(1월~6월)	
		합계	전년동월비	합계	전년동월비	합계	전년대비
	총계	63,239	△0.55	62,829	△0.65	126,063	0.39
1	자동방문판매등	251	14.1	343	36.71	685	33.66
2	SSM	431	△16.96	547	27.14	1,130	29.71
3	자동차기계장비	9,007	△5.49	10,026	11.31	19,076	6.3
4	인테리어	665	△3.32	725	9	1,357	8.6
5	보건의료	9,839	8.36	10,531	7.03	21,048	8.83
6	의류잡화	1,468	4.33	1,551	5.66	2,915	8.29
7	농수축협	109	3.49	112	3.06	208	2.06
8	주점	334	△2.23	339	1.45	659	△1.63
9	스포츠시설	1,250	△6.33	1,252	0.2	2,218	0.31
10	식품류판매	3,567	5.02	3,548	△0.53	7,349	1.71
11	생활서비스·금융·정보통신	1,539	1.18	1,517	△1.4	3,048	0.16
12	여가오락	780	△13.78	767	△1.66	1,435	△0.77
13	편의점	3,120	△1.3	3,062	△1.85	5,929	△0.25
14	교육	2,719	7.53	2,667	△1.91	5,631	2.52
15	PC방·노래방	380	△4.12	372	△2.23	753	△2.93
16	식음료점	13,278	△1.7	12,808	△3.54	25,458	△0.32
17	숙박	473	△8.53	446	△5.53	917	△6.11
18	슈퍼	3,544	△2.26	3,319	△6.35	6,662	△6.44
19	기타소매	2,317	4.13	2,074	△10.48	4,969	△7.03
20	가전가구	846	△18.4	727	△14.05	1,439	△21.63
21	교통운송	392	△22.95	335	△14.41	723	△12.92
22	대형종합소매	5,042	△8.25	4,236	△15.98	8,943	△14.47
23	문화관광	1,889	22.93	1,523	△19.39	3,510	△8.69

* 업종별 세부 분류는 부록 참고. :성장(5%~). :과찰(△5%~5%) :주의(△10%~△5%). :위기(△10%). 자료 : 카드결제정보,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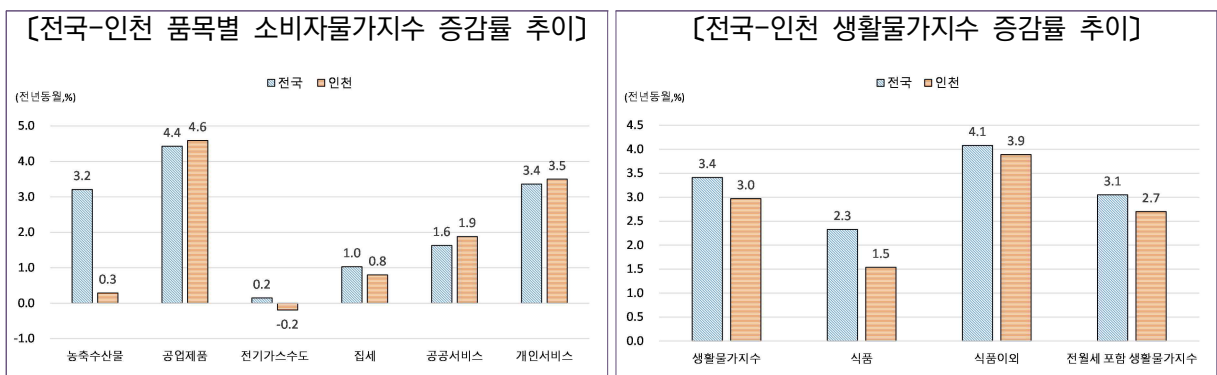
서비스 물가 둔화에도 석유류·공업제품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 서비스 물가 둔화에도 석유류 등 상품가격 강세가 이어지며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되었고, 전국 소비자물가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 '26.6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3.03%로 전월 증가율 대비 0.04%p 확대되었으며,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도 전월대비 0.02%p 상승하여 3.16%를 기록
 - 전년동월대비 축산물(5.11%)의 상승 폭 확대와 농산물(△1.56%) 하락 폭 축소에도 수산물(△3.55%) 하락 폭이 커지며 농축수산물(0.29%)은 보합권을 유지하였고, 석유류(25.6%)의 큰 폭 상승으로 공업제품(4.59%) 상승 폭이 확대됨에 따라 상품 물가는 전월대비 0.33%p 상승한 3.36%를 기록
 - 서비스 품목에서는 집세(0.8%)의 안정세 속에 개인서비스(3.5%)와 공공서비스(1.88%)의 상승 폭이 동반 둔화됨에 따라, 전체 서비스 물가는 전월대비 0.21%p 하락한 2.76%를 기록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 '26.6월 인천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97%, 전월대비 0.07% 증가하여 123.41을 기록
 - 품목별 생활물가는 전년동월 기준 식품 1.5%, 식품 이외 3.9%, 전월세 포함 2.7% 증가
 - 인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국보다 0.44%p 낮았으며, 세부적으로 식품(△0.79%p), 식품 이외(△0.19%p), 전월세 포함(△0.35%p) 등 모든 지수가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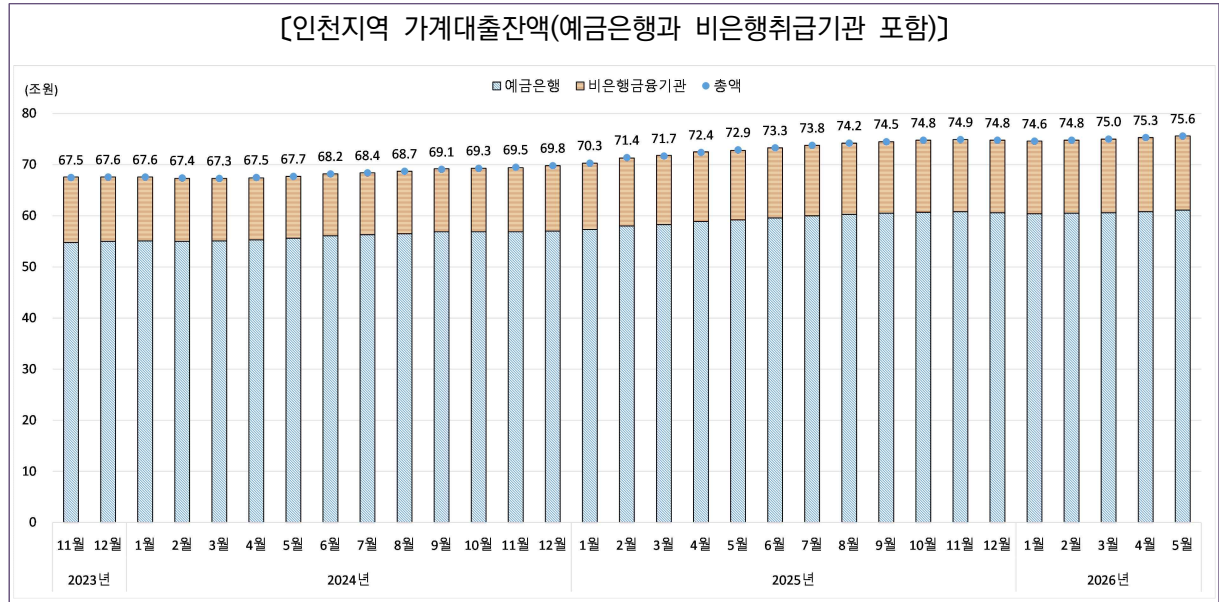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1금융권 중심의 신규 대출 증가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 '26.5월 총대출잔액은 75조 5,94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전월대비 0.4% 증가

- 예금은행 기준 전년동월대비 주택담보대출잔액은 3.3%, 기타대출잔액은 1.9% 증가
- 비은행금융기관 기준 전년동월대비 주택담보대출잔액은 15.4% 증가, 기타대출잔액은 4.1% 감소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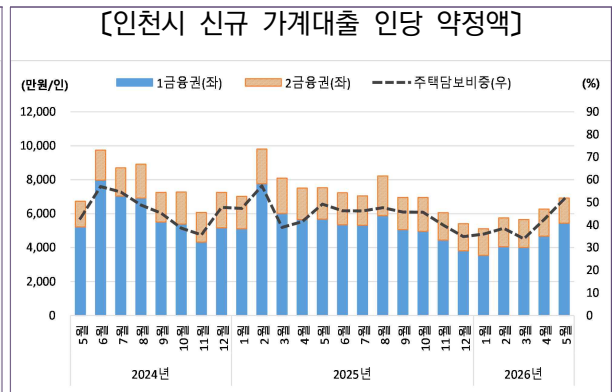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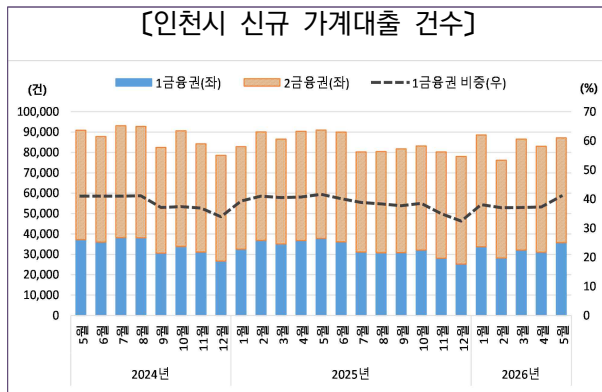
[인천지역 가계대출잔액 지표]

십억원 (전년동월비, %)		2023 연간	2024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p)
				1월	2월	3월	4월	5월	
예금은행		56,965 (3.6)	60,581 (6.3)	60,424 (5.4)	60,476 (4.2)	60,571 (4.0)	60,786 (3.3)	61,054 (3.1)	0.4
	주택담보 대출	48,942 (5.4)	52,639 (7.6)	52,517 (6.3)	52,604 (4.8)	52,705 (4.5)	52,894 (3.7)	53,067 (3.3)	0.3
	기타대출	8,023 (△6.2)	7,942 (△1.0)	7,907 (△0.1)	7,872 (0.2)	7,866 (0.8)	7,892 (0.5)	7,987 (1.9)	1.2
비은행 취급기관		12,835 (1.7)	14,203 (10.7)	14,225 (9.3)	14,301 (7.4)	14,410 (6.9)	14,518 (7.0)	14,540 (6.5)	0.1
	주택담보 대출	6,416 (21.6)	8,116 (26.5)	8,174 (22.7)	8,260 (18.3)	8,392 (16.4)	8,533 (16.3)	8,583 (15.4)	0.6
	기타대출	6,420 (△12.5)	6,087 (△5.2)	6,051 (△4.8)	6,041 (△4.5)	6,018 (△4.0)	5,986 (△4.1)	5,957 (△4.1)	△0.5
연체율 (%)	국내은행 가계대출	0.23	0.22	0.27	0.3	0.27	0.27	0.29	0.02

주 1) 비은행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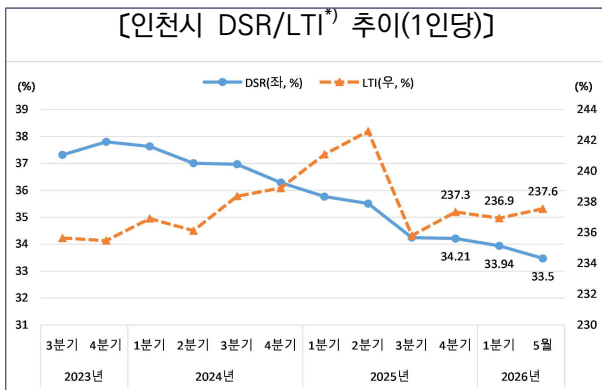
2)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 '26.5월 가계대출 신규 건수는 1금융권은 늘고 2금융권은 줄었으며, 1인당 신규 약정액은 1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전월대비 상승
 - '26.5월 가계대출 신규 건수는 1금융권 3만 5,701건, 2금융권 5만 1,478건이며, 전월대비 1금융권 15.2% 증가·2금융권 1.0% 감소, 전년동월대비 1금융권 5.7%·2금융권 3.1% 감소
 - '26.5월 1인당 신규대출 약정액은 6,920만 원이며, 1금융권 약정액은 2금융권의 약 3.69배 수준으로, 1금융권 5,446만 원, 2금융권 1,474만 원으로 구성
 - 1인당 약정액은 전년동월 기준 1금융권 4.0%, 2금융권 20.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8.1% 감소하였고, 전월 기준 1금융권 16.6% 증가·2금융권 7.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4% 증가
 - 신규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1.5%로 전월대비 9.1%p, 전년동월대비 2.3%p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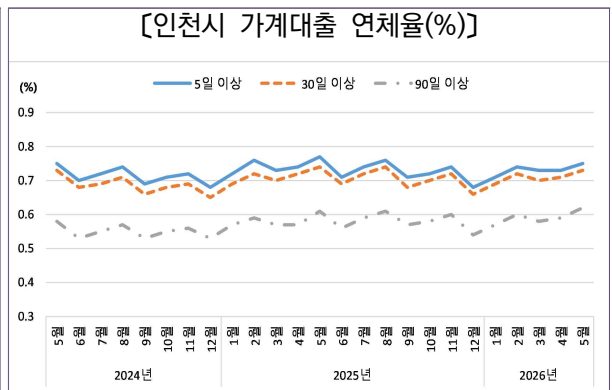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¹⁾

- '26.5월 인천시 차주의 DSR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LTI는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연체율은 전월대비 0.06%p 올랐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하락하며 2.09%의 낮은 수준을 유지
 - '26.5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²⁾)은 '25.1분기 대비 2.30%p, '25.4분기 대비 0.74%p 하락한 33.47%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26.5월 인천시 연체율은 2.09%로 전년동월대비 0.03%p 감소, 전월대비 0.06%p 상승
 - 채권의 부실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체 기간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5일 이상 0.75%, 30일 이상 0.73%, 90일 이상 0.62%로, 전월에 비해 각각 0.02~0.03%p 상승



*) KCB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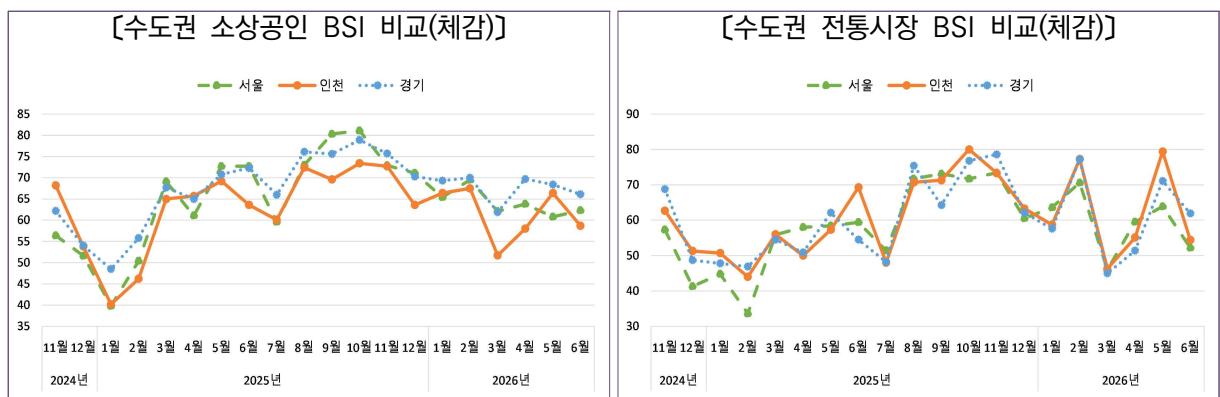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

- 1)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시도별 가계신용 집계자료 구매계약을 통해 동 자료를 동항 작성 및 연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KCB 자료는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통계와 조사방식, 포괄범위 등이 달라 통계값에 차이가 존재
- 2) $DSR(\%) = (\text{차주 1인당 연간 대출상환액} / \text{차주 1인당 연간 소득}) \times 100$
 $LTI(\%) = (\text{차주 1인당 대출 잔액} / \text{차주 1인당 연간 소득}) \times 100$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나빠지며 회복세 약화

- '26.6월 인천 소상공인 체감 BSI는 경기 부진과 매출 감소 등 우려의 응답이 늘어 전월대비 하락 전환하였고, 7월 전망 BSI도 비수기 진입 우려 등으로 하락하며 체감경기 개선 흐름이 꺾임
 - '26.6월 인천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전월대비 11.6% 감소(전년동월 △7.7%)하여 58.7을 기록하였고, '26.7월 전망 BSI는 76.9로 전월보다 9.9% 감소(전년동월 △1.4%)
- 인천 전통시장은 매출·경기 부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며 '26.6월 체감 BSI가 큰 폭 하락하였고, 7월 전망 BSI도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비수기 전환 등에 대한 우려로 체감·전망이 동반 위축
 - '26.6월 인천의 전통시장 체감 BSI는 54.4로 전월대비 31.5% 감소(전년동월 △21.5%), '26.7월 전망 BSI는 75.0으로 전월대비 7.3% 감소(전년동월 △9.3%)



자료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전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BSI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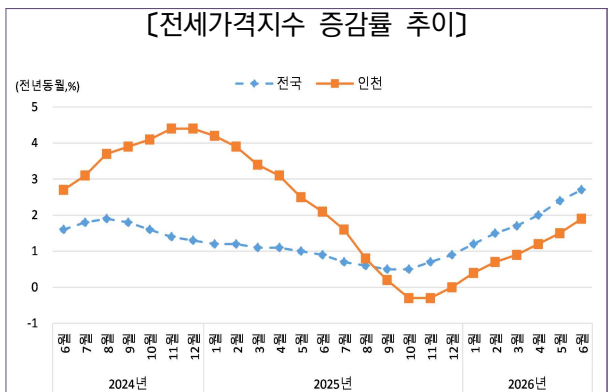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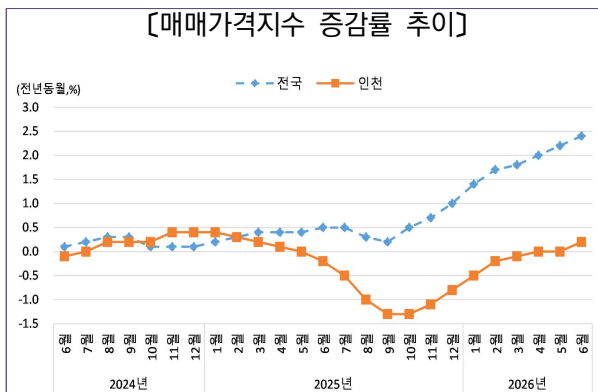
	소상공인					전통시장			
	2026년					2026년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5월	6월
BSI	57.0	63.7	67.9	63.6	BSI	43.9	55.5	70.7	59.8
제조업	59.3	69.2	70.9	61.9	농산물	44.2	54.8	66.9	55.1
소매업	57.1	67.8	76.5	67.0	축산물	39.4	50.0	85.6	68.9
음식점	52.8	62.9	68.0	65.4	수산물	25.8	43.8	62.1	54.0
부동산	53.9	61.4	58.0	68.9	가공식품	41.2	57.8	68.9	56.8
전문 과학기술	70.3	58.6	67.2	62.5	의류, 신발	48.6	62.1	84.7	66.1
교육 서비스	80.5	70.3	78.9	95.3	가정용품	42.3	48.7	68.4	64.1
스포츠 및 오락	48.3	48.0	59.4	53.3	음식점	45.9	58.4	67.6	55.1
수리업	53.4	60.1	64.0	59.3	기타 소매업	55.6	61.2	67.9	62.9
개인 서비스	64.9	69.2	65.3	57.4					

- 주 1) BSI(Business Survey index): 현재 경기수준에 대하여 소상공인 9개 업종, 전통시장 8개 업종의 체감지수, 전화조사
- 2) BSI 조사업체: 2,400개 소상공인 및 1,300개 전통시장
- 3) BSI 100이상은 경기 호전, 100미만은 경기 악화
- 4) 자료: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매매·전세가격이 오르고 매수 심리도 개선됐으나, 주택 거래량은 평년 수준을 밑도는 모습

○ 인천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약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서고 전세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매매·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

- '26.6월 인천 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18%·전월대비 0.11% 상승한 100.06을 기록하였고, 전세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0%·전월대비 0.29% 상승하며 101.20을 기록
- 유형별 전년동월대비 매매가격은 아파트(0.67%), 단독(1.12%) 상승, 연립(△0.94%)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 역시 아파트(3.10%)와 단독(0.59%)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연립(△0.65%)은 하락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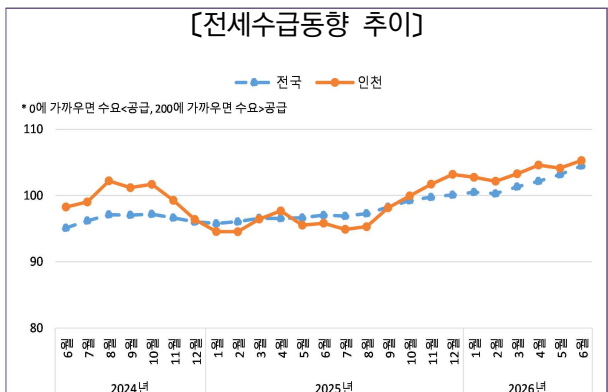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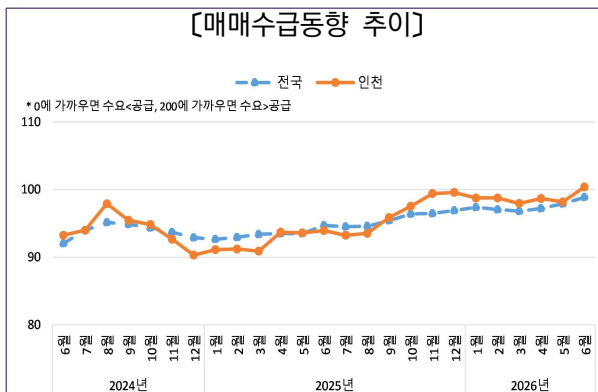


주 1) 지수 기준시점 변경(2025.01→2026.01)으로 증감률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 인천 매매시장은 수급지수가 기준선(100)을 소폭 상회하며 매수 심리가 개선되고 전세시장도 수요 우위가 강화됐으나, '26.5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줄며 평년 수준을 밑도는 흐름

- 전월대비 매매수급은 아파트(2.52%), 연립·다세대(1.18%), 단독주택(0.31%) 일제히 상승, 전세수급도 연립·다세대(2.70%)·단독주택(1.90%)·아파트(0.85%) 모두 상승
- '26.5월 주택거래량은 3,729호로 전월대비 17.3%, 전년동월대비 8.5% 감소한 가운데, 최근 3개년 5월 평균치(4,116호)를 9.4% 하회하는 수준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인천 주택거래량(매매)〕

동(호) 수 (전년동월, %)	2024년	2025년		2026년				
	평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주택거래량(인천)	3,579 (11.8)	3,598 (15.5)	3,808 (39.6)	3,668 (66.3)	3,480 (12.4)	4,417 (4.4)	4,507 (9.0)	3,729 (△8.5)

주 1) 주택거래량은 인천지역 주택유형(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 구분없이 매매인 거래를 합산한 값

2) 자료: 부동산거래현황, 한국부동산원

최근 인천경제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6년 7월 29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